

기준금리 전망 3.50%까지… 6개월 내 추가 인상 가능성

한은, 금리 인상 파급효과 점검

6개월 뒤 금리 전망 중앙값 3.25%
금통위원 전망 3.00~3.50%로 분산
GDP갭 플러스 전환시점 앞당겨져
물가·경기·금융안정 보며 속도 조절

한국은행이 물가 오름세가 더 넓게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렸다.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의 중앙값은 연 3.25%로, 금통위는 연속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두 차례 회의 연속 금리를 높였다. 금통위원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은 연 2.75%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인상 시점 앞으로 옮겼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물가를 꼽았다.

신 총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강한 성장세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소득 여건 개선으로 물가 상승세가 보다 넓게 확산하고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9%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3%로 유지했지만 근원물가 전망은 각각 2.5%로 상향했다.

신 총재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

는 시기도 크게 앞당겨져 “지금도 거의 임계치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변진 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인상 시점을 앞당겨 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

신 총재는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저하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과 환율도 조기 대응의 배경이 됐다. 신 총재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현재 46.5 수준이며 9월 발표될 수치는 장기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당히 깊은 우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추가적인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정책방향보다 시점을 둘러싼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이를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며 “시장에서 8월에 인상하느냐 10월에 인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저하는 조기 대응으로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중앙값 3.25%

한은이 공개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연 3.00%가 5개, 3.25%가 10개, 3.50%가 6개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현재보다 0.25%p 높은 연 3.25%다. 한 차례 추가 인상이 금통위원 전망의 중심에 놓였지만 현 수준 유지부터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시각은 갈랐다.

신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방향 회의

가 네 번 있는데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정도”라며 “어떻게 보면 완만한 인상세”라고 말했다.

이어 “연거푸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점검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지난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빠졌다. 하지만 의결문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모든 조건부 금리 전망도 현 수준 이상에 놓여 있어 인상 종료보다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린다.

다음 인상 시점은 8·9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소비와 내수를 확산하는 정도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두 번 연거푸 올림으로써 상당히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를 했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며 “기준금리가 3%로 가면서 모든 주체에 미치는 여파를 점검하고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1면 ‘네팔 기습 대홍수…’서 계속

정부, 신속대응팀 파견 기업 수장들도 ‘현지행’

사고 직후 정부와 기업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전날 밤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총 11명 규모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외 체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시하며 이날 예정돼 있던 수석보좌관회의와 여당 의원 초청 오찬 등 국정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李 국정 일정 전격 연기
외교·소방·경찰 11명 투입
네팔 당국과 공조 수색 총력

이 대통령은 직접 ‘네팔 홍수 관련 국민 피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기업 수장들도 현장으로 직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영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네팔로 출국했다. 남동발전 역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본사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캠프를 조성하고 네팔 정부 및 군부대와 공조 수색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수로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수백여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 구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엔비디아, 13분기째 최대 매출… 내년에도 고성장 자신

AI 데이터센터 매출 117% 급증
분기 매출 133조·영업익 88조
고객 수요 기준 매출 두 배 가능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13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차세대 AI 가속기 판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70% 안팎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며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회계연도 2027년 2분기(5~7월) 매출이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637억3000만달러(약 88조3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6%, 124%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18%, 19% 늘었다.

시장 기대도 넘어섰다. 매출은 시장 전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회계연도 2027년 2분기(5~7월) 매출이 962억2000만달러(133조3147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망치인 920억7000만달러(약 127조5000억원)보다 41억5000만달러(약 5조7000억원) 많았다. 조정 주당순이익도 2.22달러(약 3070원)로 예상치인 2.09달러(약 2890원)를 상회했다. 순이익은 596억9000만달러(약 82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26% 증

가했으며 총이익률은 75.0%를 기록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달러(약 123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17% 늘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크게 늘면서 AI 투자가 가속기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됐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실적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7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1080억달러(약 149조6000억원) 안팎으로, 중국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매출을 반영하지 않고도 직전 분기보다 두 자릿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 전망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잡았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예적으로 2028 매출 증가율을 약 70%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

인 40%대 중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고객 수요는 회사가 제시한 성장전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객사 수요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매출이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70%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부품과 생산 능력 확보도 크게 확대했다. 엔비디아의 향후 부품 구매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계약 규모는 직전 분기 1190억달러(약 165조원)에서 2790억달러(약 386조원)로 한 분기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는 앞으로 수년간 필요한 제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늘렸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인텔, AI 수요에 설비투자 28조 베풀… 삼성도 美 2나노 확장

첨단공정 놓고 파운드리 경쟁 격화

인텔, 14A 2028년 양산준비 본격화
삼성, 테일러공장 2나노 생산능력 확충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늘자 인텔이 올해 설비투자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로 확대했다. 차세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양산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면서 미국 생산시설을 확충 중인 삼성전자와의 첨단공정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27일 인텔에 따르면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도이체방크 기술 콘퍼런스에서 반도체 수요와 설비투자 계획을 밝혔다.

인텔은 올해 설비투자를 기존 180억달러(약 24조9000억원)에서 200억달러로 늘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늘면서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반도체 생산장비와 기반 투자도 늘린다. 인텔은 데이터센터용 C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 수요에 투자 확대… 14A 양산 준비
첨단공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텔은 현재 주력인 18A(1.8나노급) 공정의 수율(정상 제품 비율)이 내부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14A(1.4나노급) 공정 역시 반도체 결함을 줄

이는 속도가 당초 목표보다 빠르다는 설명이다.

인텔은 이를 바탕으로 14A를 2028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인텔은 14A 공정을 맡길 고객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진스너 CFO는 14A를 검토하는 기업이 늘면서 경영진이 매우 고객사와 만나 향후 맡길 제품과 생산 물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파운드리 사업 대부분은 인텔 자체 반도체 생산에서 나온다. 인텔 파운드리라는 2분기 57억6500만달러(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억89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삼성도 美 증설… 추가 고객 확보 나서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수요에 맞춰 미

국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은 테슬라와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첨단공정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테일러 1공장은 올해 가동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2나노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테일러 2공장도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객 확보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고객 주문 증가로 파운드리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AI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metro